



##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우취’ … 2012 우표전시회 ‘맛의 역사’ 테마틱분야 최초 대금상 수상

이메일 등 인터넷의 발달로 우표에 대한 관심은 줄었지만 '2012 대한민국 우표전시회'는 올림픽우표, 명화우표, 각종 체험이벤트로 '우취인'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명룡)가 주최한 '2012 대한민국 우표전시회'가 지난 8월 9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코엑스 A홀에서 열렸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우표에서 문화를 배우다’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우표작품전시관, 올림픽기념관, 우표미술관, 우표디자인발행관, 우표문화관 등으로 구성돼 진귀한 우표 작품이 전시됐다.

### 우표작품 전시관 … 세계 희귀 우취자료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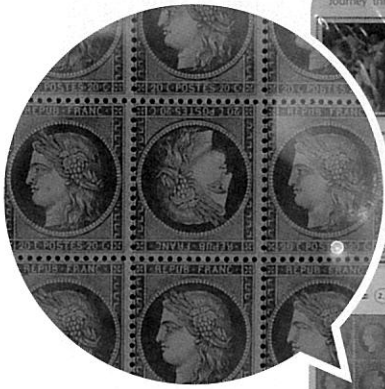
우표작품 전시관에는 대한민국 우표전시회 출품작 187작품 579틀 가운데,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지식경제부장관상, 우정사업본부장상 등 23개 수상작품을 비롯해 91작품 300틀이 전시됐다.

대통령상에는 김기훈씨가 ‘맛의 역사’라는 주제로 테마틱 우취부문 대금상을 수상했다. ‘맛의 역사’는 인류사에 있어서 맛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인류가 최초로 맛을 추구한 생존의 시대부터 농업의 발전으로 인한 맛의 풍요로움, 가진 자가 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계급사회, 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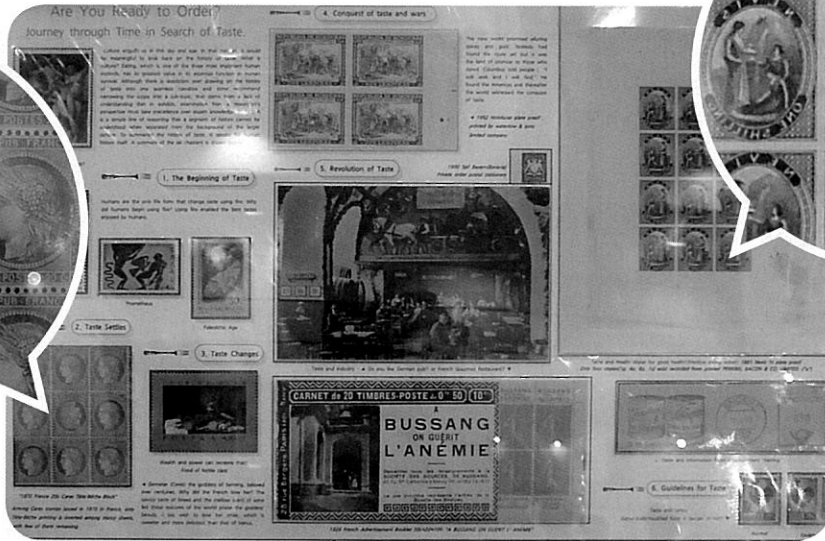
을 위한 정복과 전쟁 등과 같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들과 맛의 연관성을 추적한 대서사시다.

맛의 역사 자료에는 두 우표가 서로 거꾸로 인쇄된 ‘1870년 프랑스의 세레스 페뜨베슈 9종 블록’과 ‘세계 최초의 광천수우표인 1861년 네비스 최초우표의 실용판 시쇄’ 등이 포함돼 있다.

‘세계 최초의 광천수우표 1861년 네비스 최초우표의 실용판 시쇄’는 1931년 영국왕실우취학회의 전문가 위원회가 소집된 가운데 세미나 주제로 이용될 만큼 희귀한 자료로, 감정서에는 이러한 위원회의 전문적 자료해설과 당시의 의견들이 상세히 서술돼 있다. 이처럼 희귀자료들이 소개된 ‘맛의 역사’는 대한민국 우표전시회 역사상 최초로 테마틱 우취분야에서 대금상을 수상한 작품이며, 아시아에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FIP세계 전시회에서 ‘대금상’을 수상한 바 있는 세계적인 테마틱 작품으로서



가운데 우표가 거꾸로 인쇄된 '1870년 프랑스의 세레스테르 베슈 9종 블록'



희귀자료인 '세계최초의 광천수 우표인 1861년 네비스 최초 우표의 실용판 시쇄'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기훈씨의 '맛의 역사'. 요리에 관한 희귀 자료를 집대성한 작품이다.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각종 클래식 자료 및 프루프를 포함하는 '요리'에 관한 세계의 희귀자료를 집대성한 작품이다.

전통우취부문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한철규씨의 '대한제국우표 1884~1905'은 1884년 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우표인 문위우표부터 1905년 발행된 어극 40년 기념우표까지 구한국시대의 우표를 다룬 작품이다. 특히 구한국시대 우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태극보통우표의 전지구성에 따른 명판의 위치를 깊이 있게 연구하여 제시해 구한국시대의 우표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청소년우취부문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신가희 군산상업고등학교 학생은 '등근 모양의 물체-바퀴'로 인류의 탄생 이후 인간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수많은 발명품 중 바퀴를 주제로 다뤘다. 움직이는 모든 물체에 당연히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바퀴의 탄생과 기술 발달에 따른 다양한 이용, 인간의 생활과 바퀴의 중요성에 대해 소개했다.

### 우표수집가인 손기정 선수 유품 등 올림픽 관련 우표 전시

올림픽기념관에는 제30회 런던올림픽을 맞이하여 역대 올림픽 개최국에서 발행한 기념우표와 우표수집가였던 손기정 선수의 수집품과 서신류 등 유품이 전시됐다.

특히 전시회 개막일인 8월 9일은 고 손기정 선수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날이다. 손기정 선수는 올림픽 제패라는 쾌거를 거뒀지만,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상 때문에 월계관을 쓰고도 침통해했다. 특히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마라톤 우승자의 부상품으로 받은 청동투구는 그리스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에서 발굴된 투구로 당시 그리스의 최대신문이었던 '브라디니'의 사장 아라벤티노스가 기

중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물 904호로 지정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 인쇄기술 발전에 따른 우표의 역사

우표는 그 나라의 인쇄기술이 응집된 인쇄물로, 초기에는 단조로운 색상의 우표였으나 컬러인쇄기와 특수인쇄기술이 발달하면서 우표도 함께 발전해왔다. 또한 한 국가의 문화, 역사, 사회, 정치, 경제를 널리 알리는 메신저로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통의 도구로써 이용되고 있다.

세계 최초의 우표는 1860년 영국의 교육자이자 개혁가인 '로랜드 힐 경'의 제안에 의해 탄생했다. 영국 국왕이었던 빅토리아 여왕 초상을 담은 최초의 우표는 액면가 1페니의 흑색과 2펜스짜리 청색 우표 두 가지로 발행되었는데, 각각 페니블랙과 펜스블루의 애칭으로 불린다.

우리나라의 우표는 1884년 11월경 일본에서 인쇄된 후 우리나라로 수입된 것이 최초다. 5종의 우표 중 먼저 도착한 5문과 10문짜리 우표가 11월 18일 한성-인천간 우편에 사용됐다.➡



우표수집가로 알려진 마라톤 영웅 손기정 선수의 유품을 어린이들이 살펴보고 있다.